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6

여호수아 2장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룻기를 통해 여호수아를 가르친 Dr. David Howard입니다. 6회, 여호수아 2장, 라합과 정탐꾼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쳐두고 일종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1장에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로 시작됩니다. 3장에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명의 이스라엘인을 따라 가나안, 여리고로 들어가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일종의 삽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정탐꾼들과 라합과 함께 펼쳐지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사물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주는 배경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매춘부입니다. 히브리어로 매춘부를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회와 인류 역사의 거의 모든 시간대에서 생각하는 매춘부에 대한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돈을 위해 자신을 파는 여자.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이 아니지만 라합은 이 장에서 믿음의 위대한 영웅으로 등장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을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개인적인 영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어 가서 그 땅을 살펴보라고 하며 특히 여리고를 살펴보라 합니다.

그래서 위임은 온 땅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여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은 여리고 부분뿐입니다.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이 땅의 구석구석까지 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항상 이 스파이들에 대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별로 좋은 스파이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몰래 보내니 즉시 2절에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리에 지내는 일을 아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갔다가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였다.

이제 그들이 매춘부의 집에 간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한 수준에서 보면, 그들은 단지 원했고 불충실한 종들이었으며 그들 자신의 쾌락, 즉 육체의 쾌락을 갖고 싶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말했고 나는 그들이 거기 있었다는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집에 들어가는 말 등은 히브리어 어휘에 대한 기술적인 토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성교나 성적인 진입을 위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들이 거기에 숙박하러 간 것 같아요. 아마도 여리고는 무역로가 잘 통하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창녀의 집은 신분을 숨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절에 보면 여리고 왕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라합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4절에서 라합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숨겼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이 왔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밤에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떠났습니다(5절).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나가서 그들을 추적하세요.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들을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아마 양말과 함께 숨겨 두었다고 합니다. 뒤쫓는 자들은 여리고에서 요단강 나루터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고 이 추격자들은 불행했습니다.

물론 추적자들은 그 사람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그들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녀가 보낸 장의 뒷부분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들이 발견한 것을 보고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구출하고 환대를 베풀고 그들을 숨겨줌으로써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녀가 이 일을 하면서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약간의 부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독교윤리계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현대의 고전적인 예에서 나치가 여러분의 집에 들이닥칠 때 유대인을 숨기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생명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총돌하게 되면 두 가지 악 중 더 적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악이고, 생명을 포기하는 것도 악입니다. 따라서 더 작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차선책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모순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제공하실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신약성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절대적으로 모순되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더 적은 악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결코 악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취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냥 가서 죄를 짓고 덜 악한 것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의 명언처럼 담대하게 죄를 짓고 담대히 고백하여 그 고백에 대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내 견해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제공하시는 순간에는 충돌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현대에도 몇 년 전 철의 장막을 넘어 성경이 밀반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여행가방에 성경을 가득 들고 도착하면 경비원이 여행가방을 보고 통과시켜 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마음이 바뀌어 그냥 지나갔거나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현실이며 현대에 매우 실제적인 윤리적 문제입니다.

나치 독일뿐만 아니라 현대 중국과 다른 곳에서도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 실제로 2018년에 많은 중국인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국이 실제로 문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견해 중 어느 하나를 취하는 훌륭한 복음주의 정교회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정통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신약성서의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거기에 라합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소개하고 이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고 싶다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물론 이것은 믿음의 장, 믿음의 위대한 장, 믿음의 영웅들, 명예의 전당, 말하자면 믿음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라합이 언급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 히브리서에는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 정탐꾼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녀가 믿음의 여자였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방금 그들을 데려왔고, 그들을 친절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거짓말을 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가 다른 말을 했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히브리서에는 그러한 거짓말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야고보서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아닌 행위에 의한 칭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내보낼 때에 또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녀의 작품과 행동을 언급합니다. 그녀는 메신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다른 방법으로 보냈습니다.

야고보서는 거짓말 자체를 지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지만, 그녀가 행한 일을 언급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2장으로 돌아가서 4~8절이나 4~7절을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라합의 행동에 대한 믿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녀는 무엇을 했나요? 그녀는 스파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추격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것은 행동에 대한 그녀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성서에서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궁금해했고 결국에는 본문을 더 깊이 파고들어

라합이 한 일뿐만 아니라 그녀가 한 말에서도 표현된 라합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대답은 '그렇다'이다.

그리고 그 대답의 핵심은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가서(8절) 정탐꾼들에게 몇 가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은 당신 앞에서 녹슬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이인 줄 아노라.” 이것은 내가 땅의 선물에 관해 언급한 주제의 주요 진술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땅이다. 그녀는 바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이 당신 앞에서 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10절,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것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홍해 물을 말리신 일입니다. 자, 이것은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지속성은 라합의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라합이 여기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그녀는 어린 소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기억은 여기에 가장 먼저 남아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당신께서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곧 시내산과 옥에게 행하신 일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중에 이 두 왕을 만나 싸워 그들을 물리쳤느니라.

그래서 라합은 1년 전에 두 가지 소식을 들었고, 최근에는 한 가지 소식을 더 들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들, 특히

이집트인들에 맞서 어떻게 그들의 편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 그들은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라합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은 녹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9절의 녹이다라는 단어는 11절의 녹이다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하나는 얼음처럼 녹는 것입니다. 하나는 왁스처럼 녹는 것이다. 그리고 요점은 어떻게 보든 우리는 단지 웅덩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저항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에게는 백본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은 녹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영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여기서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싶다. 앞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니다.

그러면 정탐꾼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니까? 정탐꾼들은 이곳이 그 땅에 거인들이 있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도시는 크고 견고한 도시이다.

땅의 수확물이 너무 많아서 강간이 너무 많아서 강간이 너무 많아서 두 사람이 그것을 운반해야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죽습니니다. 탈구 등이 모두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는 내적 관점을 발견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광야에서 그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지겨웠던 그 오랜 세월 동안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여기 라합의 눈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내부 관점을 보게 된다는 것은 나에게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대를 무효화합니다. 그러나 이제 라합의 신앙고백의 핵심은 11절 끝부분에서 발견됩니다.

그녀는 여호와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이시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잠시 멈춰서 가나안 종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에서 바알 종교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비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929년에 지중해 연안인 시리아 연안의 우가리트(Ugarit)라는 도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대도시, 국제도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역로에 있었고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상업과 종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천 개의 태블릿으로 구성된 거대한 왕실 기록 보관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이 가장 높은 신이라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에 관해 논하는 수많은 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아버지, 곧 엘이라는 신과 그의 아내 아세라에 대해 모두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세라가 대개 그녀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장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 이야기에서 우리는 바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대적들, 즉 죽음의 신인 모트라는 신과 바다의 신인 얌이라는 신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아나트와 아낏과 모트가 싸운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가나안인들이 숭배했던 가나안 신들의 만신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쳐진 성소 시스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높은 신이요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구름을 탄 사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의 신은 번개뿐만 아니라 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가 땅에 물을 주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저장고 등이 없었던 고대세계에서는 기근과 가뭄은 그야말로 현실이자 실존적 위기였다.

그래서 바알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싶어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를 내리고,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산의 신이자 하늘의 신 등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몇 년 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사이의 대결을 기억하십시오.

바알이 제단에 불을 보낼 수 없었을 때, 주님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고 이로 인해 가뭄이 끝났음을 기억하십시오. 3년 동안 가뭄이 들었고, 엘리야가 밖에 나가 보니 작은 비구름이 오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러니한 것은 엘리야 시대에 폭풍의 신, 구름의 신, 비의 신인 바알이 땅에 비를 내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야훼,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 체계 사이에 실존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녀를 여리고에 있는 바알 제일 교회의 주일학교에 데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녀는 주일학교에서 이 모든 신들과 여신들에 대해, 그리고 바알이 누구인지, 아세라와 다른 모든 것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배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에 암시적으로 라합은 바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기 11절의 구체적인 표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 그 단어, 정확한 단어, 위로 하늘, 아래로 땅은 이전에 성경에 세 번만 등장했습니다. 이 명령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형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아래로 땅에든지 땅 아래 물에든지.

따라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두 경우 모두에서 요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세 번째 언급이 신명기 4장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명확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성경이 있다면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우리는 문단의 중간으로 뛰어들어 문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너희는 오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라합의 입에도 똑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경에 나오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대한 세 가지 언급은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비할 데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런 말을 할 때,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바알 주일학교 첫 번째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상이나 가족의 신들을 암묵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이 듣는 이 새로운 신,

이스라엘의 신이 참 신임을 확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녀가 말하는 말에 대한 큰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전체 종교 체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자신을 실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서는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특히 11절에 나오는 이 말이 그녀의 말이요, 말로 표현된 믿음의 선언이며, 그것이 그녀를 믿음의 위대한 영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녀의 진술,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4~7절), 말로 표현한 믿음의 진술(9~11절)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은 맏소사, 라합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 말을 알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나 신명기에 있는 단어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니? 제 생각에는 이에 대한 몇 가지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성이 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시혼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지나간 무역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조치를 취했고, 이 하나님에 관해 다른 것들을 들었고, 그 말씀을 확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합리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녀가 이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의 저자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녀가 말한 것을 일종의 의역하여 오경의 앞부분과 일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 그녀가 말한 것은 실제로 믿음의 단계였으며 오경의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며 상황을 정확히 들어맞게 만든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가 실제로 이 말이나 그와

매우 유사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그녀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녀가 정탐꾼들과 협상하는 것과 그녀 자신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선대할 것을 여호와로 맹세하라 하였느니라. 당신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녀와 스파이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며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밧줄로 그들을 내려 놓습니다. 그리고 6장의 뒷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러 왔을 때, 여리고는 이 진홍색 밧줄을 창문에 걸어 그들이 무엇을 파괴하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끈의 색깔을 그리스도의 피의 진홍색이나 이와 같은 유형학적 상징과 묶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짧은 대답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색상 단어도 다르며 좋은 시도이지만 실제로 사실에 뿌리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은 그녀가 그것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고, 21절에서는 그녀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여호수아를 찾으러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에게 말하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고 그 땅의 서식지도 우리 때문에 녹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장단점은 그들이 그 땅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한 가나안 사람의 이야기에 아름다운 삽입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전체 문제에 대해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명령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암묵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라합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들었던 나머지 가나안 주민들이 라합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반응했다면, 파괴 없음. 라합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미리 생각해 봅니다. 요나는 니스웨가 멸망되고 니스웨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에 나오는 니스웨의 예가 여호수아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회개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멸망을 면했을 것입니다. 라합에 대한 마지막 각주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그녀도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마태복음 1장의 처음 17절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이 족보에는 여자가 다섯 명 있는데 그 다섯 명 중 네 명이 외국인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는데 그는 가나안 사람임이 분명하고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를 꾀어 동침하게 합니다. 5절에는 창녀 라합이 있고, 5절에는 모압 여자 롯이 있고, 5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따라서 다섯 명 중 네 명은 외국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포용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러한 잘못된 이분법 중 하나는 하나님이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이방인의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예에서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세상 구주의 계보에 포함된 다른 세 사람과 함께 이방인 여인 라합의 훌륭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 다섯 명의 여성 모두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창녀로 변장합니다. 라합은 매춘부입니다. 롯은 한밤중에 가서 보아스의 발 앞에 누워 그의 발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순전히 결백했는지 모르지만, 십대 딸들이 그 나이에 누구와도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는 다윗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물론, David는 그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지만 그녀는 그 일부입니다.

그리고 메리는 혼인 관계가 아닌 아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몇 가지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나는 이 세상이 모든 민족, 이방인, 심지어 사회가 불가촉천민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부도덕하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 2장을 마무리하면, 이것은 가나안 문화에 뿌리를 둔 외국인의 아름다운 예입니다. 그 외국인은 창녀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품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룻기를 통해 여호수아를 가르친 Dr. David Howard입니다. 6회, 여호수아 2장, 라합과 정탐꾼입니다.